'농아인들 삶' 필름에 담는 청각장애인 박재현 감독

"영화는 세상 향한 소리없는 절규"

청각장애를 가진 20대 감독이 자신과 주변 농아인들의 경험을 담은 단편영화를 잇따라 내놓아 화제다. 〈사진 한겨레신문 제공〉

세살 때 앓은 중이염으로 청각을 잃은 박재현(24·서울 강동구) 감독은 카메라로 세상과 소통한다. 지금껏 만든 영화만 6편.

청각 잃고 카메라로 세상과 소통

박 감독의 영화에는 소리도, 색도 없지만 다른 영화에는 없는 '수화'가 있다. 지금 시대에 흑백 무성영화라고 생각하면 지루하거나 아주 독특할 것 같지만 수화로 소통하는 박 감독의 영화 속에는 청각장애인들의 삶이 가감없이 녹아 있다.

올 4월 서울 장애인권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어느 애비의 삶'(15분)은 지난해 세 식구의 생계를 꾸리다 벌금 70만원을 징수당해 목숨을 끊고 만 한 청각장애인 노점상의 사연을 화면으로 가져와 생계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절절한 심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개인적인 경험도 빠질 수 없다. 영화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면서 느낀 차별과 편견의 높은 벽을 세번째 영화 '소리없는 절규'로 표현했다.

카메라로 세상을 보기까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외로운 작업은 아니다. '천원 이야기'까지 지금껏 6편의 영화를 만들어 오면서 친구들과 '데프 미디어(Deaf Media)'라는 영상제작단을 꾸려 힘을 북돋웠다.

2005년 봄 3명이 모여 영화동호회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15명에 가까운 어엿한 영상제작단으로 거듭났고 살아 있는 수화를 필름에 담아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목표를 일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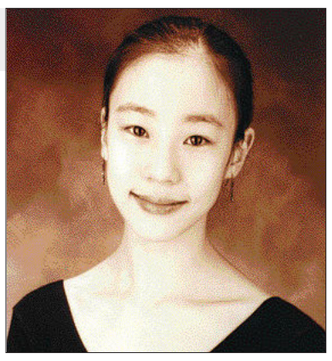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이라는 '비주류'의 입장. 비장애인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영상에 담아 '차이'와 '차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것이 이들의 소망이다.

"청인·농인 함께하는 영화 만들것"

박 감독은 "영화는 청인(비장애인)과 농인(청각장애인)의 문화를 소통해주고 서로의 언어를 존중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이고 서로의 문화 차이를 넘으려면 있는 그대로의 수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인과 농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USA 발레 콩쿠르' 은상 박세은양

성숙함·카리스마에 박수갈채



서울예고 2학년생인 박세은(17·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영재입학 예정·사진)양이 세계 4대 발레경연대회의 하나인 USA 발레콩쿠르(일명 잭슨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다.

박양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 열린 USA 발레콩쿠르 여자 주니어 부문에서 금상 없는 은상을 수상함으로써 사실상 1등에 올랐다.

박양은 1차전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중 라일락 요정의 춤과 '파키타' 중 그랑 아다지오 솔로, 2차에서 'To Memory'(김진욱 안무), 결선인 3차에서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중 오로라 공주의 솔로와 오베르의 '그랑 파 클라식', 'The Day'(조지영 안무)를 각각 선보였다.

브루스 마크스(미국)와 문훈숙(한국) 등 각국 심사위원들은 박양에 대해 "길고 우아한 팔다리 등 발레 무용수로서 최적의 몸매와 얼굴, 품격있는 상체 움직임(포르 드 브라) 등 뛰어난 기량, 어린 나이로는 믿기지 않는 성숙한 표현력과 흡인적인 카리스마"에 놀라워했다고 참가자들은 전했다.

박양은 서울예고를 다니는 한편 예종 무용원 예비학교에서도 꾸준히 지도를 받아왔으며 이번에 국제대회 첫 출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잭슨콩쿠르는 바르나, 모스크바, 로잔과 함께 세계 4대 발레대회의 하나로, 냉전시대 동서 경쟁의 분위기에서 공산권의 유명 콩쿠르에 대항하기 위해 1982년 미국 상·하원이 합동결의를 통해 창설한 대회이다. 규모와 수준이 세계적인데다 4년마다 한번씩 열려 모스크바 콩쿠르와 함께 '발레 올림픽'으로 불린다.

남녀 주니어(15-18세) 및 시니어(19-26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비디오 예비심사를 거쳐 1차에서 클래식 발레 발췌 2편, 2차에서 현대무용 1편, 3차에서 클래식 발레 2편과 현대무용 1편을 추어야 한다. 올해 대회에서는 비디오 예심을 거친 27개국 121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과거 이 대회에서 한국인으로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현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원)이 1998년 동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에는 예종 예비학교 재학생 한상이(현 모나코 발레단원)가 금상없는 동상을, 예종 재학생 하은지(현 유니버설 발레단원)가 댄스 매거진 특별상을 받은 바 있다.

손정의사장, 日 신입사원 '동경하는 CEO' 1위

한국계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이 올해 일본 신입사원이 동경하는 경영자 3위로 뽑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능률협회가 올 봄 신입사원 세미나에 참가했던 33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 1위는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사장(20.2%)이, 2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9.4%)이 각각 차지했으며 손 사장(6.3%)이 그 뒤를 이었다.

혼다 소이치로(本田宗一郎) 혼다자동차 창업자와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마쓰시타전기 창업자가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르노·닛산의 곤 사장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던 닛산차의 재건에 수완을 발휘한 점이 평가됐다.

손 사장은 굴지의 IT 기업을 일구고 일본 최고의 갑부로 떠오른 점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광주 남구청

◇4급 승진 ▲총무과 오기주

◇5급 승진 ▲총무과 이옥주 ▲세무과 이재덕 ▲세무과 이정희 ▲월산5동 박경철 ▲건축과 고영채 ▲도시개발과 박병구

◇6급 승진 ▲기획감사실 최춘식 ▲총무과 정석희 ▲정보통신과 강래광 ▲경제과 고영라 ▲ 위생과 송춘종 ▲건설과 이동진 ▲교통과 이용범 ▲의회사무국 이남훈 ▲방림2동 전용호 ▲도시개발과 박천근 ▲세무과 김태환 ▲위생과 장인순

◇7급 승진 ▲기획감사실 박윤정 ▲기획감사실 오범열 ▲문화사업추진단 김용일 ▲총무과 김성광 ▲민원봉사과 박은영 ▲도시개발과 김효수 ▲환경관리과 이석희 ▲복지지원과 박양현 ▲세무과 김대중 ▲복지지원과 변숙자 ▲보건소 강병철 ▲보건소 신은경 ▲대촌동 윤영선

◇8급 승진 ▲도시개발과 최문석 ▲세무과 조선주 ▲보건소 최영숙 ▲종합문예회관 박경수 ▲총무과 권윤중 ▲위생과 김상일

◇9급 기능직 승진 ▲총무과 김선 ▲종합문예회관 정승원

병무청

◇본부장급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관 송하선

오병욱교수, 예술의전당 전시예술감독

〈故 오지호 화백 손자〉

고(故) 오지호 화백의 손자인 오병욱(동국대 미술대학·48) 교수가 예술의전당 전시예술감독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1년.

서울대 미대에서 석사, 프랑스 파리 8대학 조형미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오신임 감독은 광주비엔날레특별전 큐레이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거쳤다. 호남 서양화단을 개척한 고(故) 오지호 화백의 손자이기도 하다. '한국현대미술의 단면', '고딕미술' 등 저서를 냈다.

로이드 웨버, 자선 목적 피카소 걸작 판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자선 목적을 위해 최대 3천300만파운드(약 573억6천700만원)를 호가할 수 있는 피카소의 걸작을 판매한다고 BBC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청색시대인 1903년에 그린 친구 앙헬 페르난데스 데 소토의 초상이다. 로이드 웨버는 1995년 1천800만파운드(약 12억9천100만원)를 주고 이 작품을 샀다.

웨버는 어떤 목적에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11월에 이 걸작을 팔아 연극과 예술을 포함해 좋은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젊은 예술가의 훈련과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웨버는 "피카소의 걸작 판매가 거액을 기부한 워런 버핏은 못될지 몰라도 작은 버핏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중식의원, 박지성 선수에 감사 기념패

신중식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독일월드컵경기에서 선전을 한 박지성선수에게 고흥군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신중식의원실 제공〉

광주 신광중서 열린 신문활용교육(NIE)

광주일보사와 한국신문협회가 실시 중인 신문활용교육(NIE)이 지난 1일 본사 정기태 사회 1부장이 강사로 나서, 신광중학교(교장 양동호) 신문반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보는 앞으로도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계속한다. 문의(062)220-0514.

월드컵 스타들의 연인들

1일 독일 겔젠키르헨 벨틴스 아레나에서 열린 잉글랜드 대 포르투갈의 월드컵 8강전에 잉글랜드 대표 선수들의 여자친구들이 총 출동했다. 사진 왼쪽부터 웨인 루니의 여자 친구 콜린 맥러플린·애슐리 콜의 여자친구 셰릴 트위드·데이비드 베컴의 부인 빅토리아 베컴.

마라도나, 아르헨 8강전 관전 못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1일 열렸던 독일과 2006 월드컵 축구대회 8강전을 관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일 "마라도나가 경기가 열린 베를린 스타디움에 왔지만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입장이 거부되는 바람에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국제축구연맹(FIFA) 마르쿠스 지글러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마라도나가 4장의 VIP 티켓을 갖고 왔으나 일행은 5명이었고 또 그 중 한 명은 FIFA에 의해 입장이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지글러 대변인은 "'일행 중 한 명은 기간 내내 너무 무례한 태도를 보인데다 폭력 행사 직전까지 가는 등의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조원래(순천대 교수)씨 장남 창룡군 류진수씨 장녀 은희양=8일(토) 오후 3시 서울 고려대 교우회관 1층. 피로연 4일(화) 오후 6시 순천 동부웨딩문화원 뷔페.

▲김영진(광주시 건설국장)씨 장남 대호군 강덕현씨 차녀 세진양=8일(토) 낮 12시 오페라하우스 1층.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33회 동창회(회장 강성두) 월례회=3일(월) 오후 7시 영미오리탕. 527-0249

▲북성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주문철) 월례회=4일(화) 오전 10시30분 만나부페.

▲광주 사대부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4일(화) 오후 7시 이가식당.

▲재광 홍일고 이사회(회장 김철남) 정기모임=6일(목) 오후 7시30분 쌍촌동 목포 갯벌낙지. 011-611-9005

▲북성중 제 7회 동창회(회장 김권수) 월례회=7일(금) 오후 7시 금강산. 224-0808

▲광주대 토목공학과 총동문회 정기모임=7일(금) 오후 7시 모교 옆 남구보신탕(오리전골). 674-1834

모집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만 15세 이상 전맹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과정·뇌병변 특화과정·프로그램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비 무료. 기숙사 등 편의 제공. 문의 061-320-7051~5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극단 청춘 회원 및 단원 모집='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창작극 활성화를 위한 특별 기획 공연 등 차기 작품 참여자 모집. 20세 이상으로 배우·기획·연출 분야. 7월 9일까지. 문의 430-5257.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집=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광주시 남구 방림동 자율방범대원 모집=방림동 거주자(25~55세)로 야간에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할 사람. 016-362-2180, 652-8389

▲광주아버지합창단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223-0808, 016-601-3190

▲충견문화진도견 보존회원 모집=진도견 혈통사협 및 전람회 수렵동호인 모집 011-642-2866

▲장애인 일일 나들이 봉사회원, 이·미용 회원 모집=장애인 이용 회원 2명, 자원봉사 회원 2명. 0505-206-0106

▲(사)미륵대도 대명문화원 댄스동아리 회원모집=초·중·고 대학생 010-9871-3648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7시~10시30분 223-8529, 016-223-9541

▲담양장애사랑봉사회(회장 서원효) 봉사회원 모집=중증재가장애인에게 봉사할 차량·후원·말벗 봉사회원 각 50명씩, 문의 (061)381-8909, 011-9600-8909, 011-9600-8102

▲장애인 차량봉사=장애인 차량 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일원(담양·나주·화순) 등 2~3일전 예약시 가능, 0505-206-0106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푸른학당=오전반(검정고시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대 맞은편 2층 529-1188

부음

▲국한택씨 별세 천표·성표·석표·진표·돈표·경자·경순씨 부친상 박동호·김윤수씨 빙부상=발인 5일(수)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

▲김두환씨 별세 순길·경운·은표·영란·경복·경희씨 부친상 정순석·이정남·박성순씨 빙부상=발인 4일(화)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062) 521-1100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뒤(구 호전)
대표:(062)515-4488